

구,²⁾ 둘째, 피해자의 증언 수집을 통한 일본군위안부의 피해와 일본군위안소에서의 생활실태 연구,³⁾ 셋째, 일본군위안소제도에 대한 국가책임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고찰 및 국가책임을 실현시키려는 국내의 운동에 관한 연구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한일 양국의 선행연구

2) 한국에서 발간된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역사, 사회적 연구》, 도서출판 풀빛, 2001; 안연선, 《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삼인, 2003 등이 있고, 일본에서 발간된 것으로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편저, 《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 大月書店, 1995;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從軍慰安婦》, 岩波新書, 1995; 윤명숙(尹明淑), 《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明石書店, 2003(동 저서는 박사논문 “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及び朝鮮人軍隊慰安婦の形成に關する研究”, 一橋大學大學院, 2000. 7을 출판한 것임); VAWW-Japan 엮음, 《日本軍性奴隷を裁く 2000年女性戦犯國際法廷の記録》, 緑風出版, 2000~2002(전 6권) 등이 있다. 그 외 특기할 것은 ICJ(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1994. 11); UN 인권위원회의 Coomaraswamy의 보고(1996. 2, 2003); UN 인권소위원회의 McDougall 보고(1998) 등이 있다. 이외 문헌 목록은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 연구분과 편,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신인, 2005 참조.

3) 한국에서 발간된 증언집으로 제한하자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소 공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를 1~5》, 한울, 1993~2001(단 시리즈 4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집 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소 공편,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정신대연구소 편,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2003;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 아름다운 사람들, 2003 등이 있다.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증언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소한 재판 기록(일본어, 각 지원단체 발간)이나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피해자의 증언집(일본어) 등도 있다.

4) 주요 저서(한국 발간)로 제한하면, 김명기, 《정신대와 국제법》, 법지사, 199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의 특징을 살펴보면, 1차 사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연구는 일본군위안소제도의 실태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비해 한국을 비롯한 각 피해국의 연구나 조사는 피해자의 증언을 통한 군위안소에서의 생활실태 및 피해 상황을 채록(採錄)·발간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의 구술(口述)은 문헌자료로는 알 수 없는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용어〔일본군위안부, 정신대(挺身隊), 종군(從軍)위안부, 성노예〕에 대해 정리해 두고자 한다. 1990년대 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에서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정신대’라는 용어가 일본군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1988년경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이 바로 일본군위안부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곧 수정되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정신대’와 ‘위안부’는 별개의 동원형태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1944년 8월⁶⁾)에 의해 동원된 노동 동원의 형태이지

전망》, 풀빛, 200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박원순, “일본전쟁범죄처벌 지급도 가능할까”, 〈역사비평〉 20호, 1993, 봄; 김창록, “정신대문제를 통해 본 일본의 전쟁책임”, 《학술논집》 3, 한국해양대 사회과학연구소, 1998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이외 문헌 목록은 앞의 책,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참조.

5)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편,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신인, 2005에는 2003년까지 한일 양국에서 발간된 군위안소·위안부 관련 단행본과 논문 등의 문헌목록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에 대해서는 해제도 실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발간된 문헌에 대해서는 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際基金 編, 《慰安附屬関係文獻目録》, きょうせい, 1997에 자세히 다.